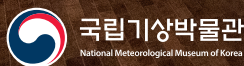




날씨의 역사를 담다

국립기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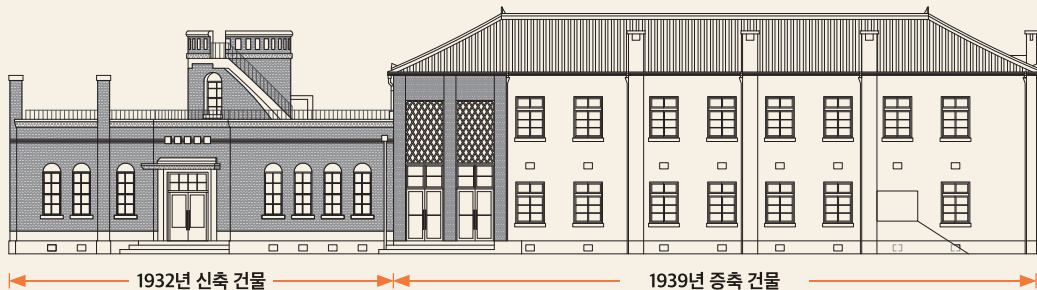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국가등록유산으로서 국립기상박물관

국립기상박물관 건물은 1932년 경성측후소 청사로 신축되었고, 1939년 동쪽으로 2층 건물이 증축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상관측과 기록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2014년 본관 건물, 우량계실, 계절관측의 표준이 되는 단풍나무와 벚나무의 식재지가 국가등록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이곳을 '100년 관측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본관은 근대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통형 옥탑 구조물, 곡선의 현관과 처마 지붕 상층부의 돌림띠 요철 장식, 반원형 창틀 구조, 외부 벽면에 타일로 마감하는 등 기하학적인 형태와 공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혁



- 2020 국립기상박물관 개관(10월), 1종 전문박물관 등록(11월)
- 2019 국립기상박물관 준공
- 2016 서울 기상관측소 원형 복원 설계
- 1998 기상청 청사 신대방동으로 이전
- 1953 국립중앙관상대를 인천에서 서울(현재 박물관)로 이전
- 1939 경성측후소 청사 증축
- 1938 조선총독부기상대로 개편
- 1933 송월동 1-1번지 경성측후소에서 관측 개시
- 1932 경성측후소(송월동) 신축 완료
경성측후소(낙원동)를 송월동 1-1번지로 이전

관람시간

10:00~18:00(오후 5시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 휴관

관람료

무료

전시해설



사전예약제

10:00, 11:00, 14:00, 15:00, 16:00

※ 예약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현장 예약 가능합니다.

문의

070-7850-8493

<https://science.kma.go.kr/museum>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방향에서 800m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람하기

국립기상박물관은 기상유물을 보존 계승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상과학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서양보다 200여 년 앞서 발명된 측우기와 근대 기상관측기기와 기상기후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설립된 이곳 서울기상관측소는 근대기상관측을 시작한 원남동(1907년), 낙원동(1913년), 송월동(1932년)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근현대 기상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관람 편의 시설

1F 안내데스크, 유모차 보관소, 화장실, 리프트, 100년 쉼터

2F 경성측후소 건축자재, 기증자의 벽, 리프트



상설전시실 1·2(1층)

조선시대 측우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되다



I. 하늘을 섬기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기상역사를 기록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뭄과 큰 눈이 기록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부터, 벼락과 가뭄 등이 기록된 「고려사」 등을 통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우기 발명 전에 빗물을 쟀 '우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국보] 현종 3년(1837년)



대구 경상감영 측우기
[국보] 영조 46년(1770년)



관상감 측우대
[보물] 조선 전기 추정



II. 하늘의 뜻을 읽다

조선시대 우량관측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측우기와 측우대 그리고 제작에 사용된 주철과 포백철 등 도량형의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한반도 우량관측망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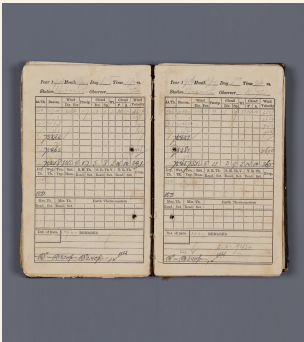
상설전시실 3·4(2층)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하다



III. 다른 하늘을 만나다

개항기 이후 근대기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로 국가등록 유산인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풍속계, 강수량계, 백엽상,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다양한 관측 장비를 통해 근대기상 관측장비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국가등록유산] 1904년



수은 기압계
1962년



로빈슨 컵 풍속계
1962년



IV. 하늘을 가까이하다

자동관측기기의 다양화,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예보 생산 과정과 국가 기상센터를 24시간 동안 촬영한 영상으로 기상 예보관의 하루를 볼 수 있으며, 기상관측 테이터를 터치스크린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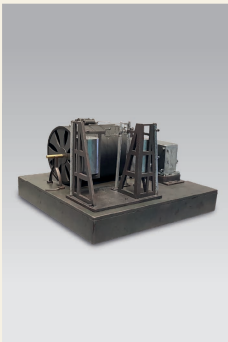
상설전시실 5(1층)

송월동으로 경성측후소를 이전하다



설립 당시 지진계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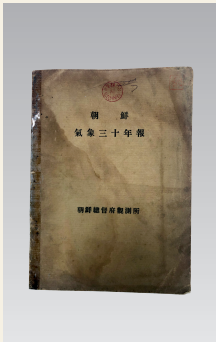
기상관측과 날씨 정보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해 인구가 밀집된 낙원동에서 한양도성 밖의 높은 지대인 송월동으로 1932년에 경성측후소가 이전됩니다. 지진계실의 하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지진 관측 장소로 당시 축조 기술과 관측기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모리식 간단미동계
(복제품)



비헤르트 지진계
(복제품)



조선기상30년보
1936년